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

나는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빵’ 운동을 추진하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다닐 기회가 많았다. 거기서 잘못된 정치와 싸움 등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다.

가난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이며 둘째는 가정 밖에서의 일로 가난하게 되는 경우이다. 생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입이 어려운 경우와 부모가 건전하지 못한 생활로 스스로 가난을 자초한 경우가 첫째의 이유이다.

둘째의 경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든가 나라가 살림을 잘못하든가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가난하게 되는 경우이다. 지난 5월 23일부터 라오스를 방문했었는데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병이 나면 약이 없어 그대로 죽어야 하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짓을 할까 끔찍하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법이나 있었다.

에디오피아는 6·25 한국 전쟁 때만 해도 16개국 참전국 중에 하나로 아프리카에서는 잘사는 편이었다. 그러나 공산 정권이 20년 간 잘못된 정치를 하여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변하고 말았다. 러시아 동독 북한이 모두 그와 같은 나라들이다. 가난한 나라들을 도우면서 나는 위에서 말한 가난의 이유 외에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다른 나라로부터 받기만 했던 나라라는 것과 그들의 종교가 거의 모슬렘, 힌두교 불교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난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뜻으로 믿고 발전적 계획을 포기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인도와 같은 나라는 소를 신성시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굶어죽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가 잘못된 종교 때문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다만 불편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가난이 심해지면 삶이 위협을 받으며 심지어는 죽게 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가난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며 더 잘살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기를 원하셨지만 생활은 가난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러기에 가난하고 병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늘 도와주셨으며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우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간곡히 말씀하셨다.

이 가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건설하라고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계속 성장할 뿐 아니라 지구촌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 도와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으로 돕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 것을 주면 그만큼 없어지고 손해를 보는 것으로 여기지만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기독교 국가들은 모두가 잘 사는 선진 국가들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처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잠 11:25)지는 법이다.

예수님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다.

주는 사람, 주는 나라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축복해주시는 것이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사람은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행복은 많이 갖고 적게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넉넉하거나 간에 움켜만 쥐고 남을 도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심히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며, 조금 덜 먹고 아껴서 나보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면 참으로 값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부자라고 인식하지 말자.

열심히 일하여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좋은 일, 이웃을 돕는 일에 잘 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왕상원/ 한국선명회 선교국장. 신촌성결교회 협동목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